

사회

문제 학생 관리 '속수무책' 학교폭력·범죄 부른다

7차례 보호처분 중학생 또 절도 '영장'

학교 내·외에서 폭력을 일삼거나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다수 학교들이 '문제 학생'들을 교육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이라는 점과 인권 차원에서 접근, 단순하게 교화와 지도에 초점을 두는 관리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폭력 학생들은 학교의 정상적인 체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일반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사 처벌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이들 문제 학생들은 수년간 유급되는 경우가 많아 전과가 여러 차례인 케이스도 상당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제18조·학생의 징계) 교육상 필요한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

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미한 처벌과 관리가 학교폭력을 막지 못하는 만큼 학교가 이들 문제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징계 및 지도 방법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모 중학교 3년 이모(16)군은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A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김모(7)군에게 "물 한잔 마시자"며 집으로 뒤따라가 "함께 숭바꼭질을 하자"고 제안, 집안 곳곳을 뒤져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광주북부경찰청은 미성년자가 금에

받고 이군을 검거했으며, 이군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지난 4일에도 공용물건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절도·폭행 등으로 7회나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군은 교내의 봉사활동과 대안학교 위탁 교육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을 무시위하지 않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선량한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벌백계식의 엄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모 중학교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가장 큰 처벌은 출석 정지 10일인데, 아마저도 해당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는 벌써 식목철

17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마루공원에서 열린 '제 65회 식목행사'에 참가한 서구청 소속 공무원 300명이 왕벚나무·매화나무를 정성껏 심고 있다. 서구는 이날 6천㎡의 면적에 1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험 핑계' 입영 연기 무더기 적발

경찰, 광주 등 55명 인터넷 통해 허위 증명서 매대

입영시기를 늦추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허위 재원증명서를 사고 판 전 산학원장과 광주 등 전국의 입영 대상자 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입영 대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원의 재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A전산학원장 최모(55)씨와 직원 안모(4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돈을 주고 재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한다는 광계로 상습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이모(24·광주

시 남구 월산동)씨 등 5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에 '입영연기 대행'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씨 등으로부터 25만~45만원씩을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국가자격시험 등에 응시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을 통해 허위 증명서를 사고 판 뒤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연기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 등 입영 대상자들은 최씨에게 돈을 주고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 처럼 속여 입대를 늦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006년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관정을 받았지만, 전자기기기능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 처럼 속여 2007년 12월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 연기를 받았다.

경찰은 유사한 방법으로 입대를 연기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운기 사고 60대 숨져

17일 오전 8시45분 진도군 고군면 벽파마을 농로에서 김모(65)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 한 모(60)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사로에서 후진을 하던중 핸들이 꺾이는 바람에 좌석에서 떨어져 경운기에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park@

'김길태' 애꿎은 동명이인들 곤욕

○"김길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면서 애꿎은 동명이인들이 곤욕

○"김길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면서 애꿎은 동명이인들이 곤욕

○"김길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면서 애꿎은 동명이인들이 곤욕

○"김길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면서 애꿎은 동명이인들이 곤욕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학교폭력 피해학생 1062명

시교육청 2009년 집계 ... 492건 발생 전국평균 2배

광주에서 2009년 한해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수가 1천명

17일 광주시교육청의 2009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에서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모두 1천 62명(남학생 706명, 여학생 356명)에 이른다. 광주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모두 492건이며, 2009년 9월 현재 학교수 대비 발생률은 4.88건으로 전국 평균(1.70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3명, 중학교 940명, 고등학교 63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폭행(301명)과 금품갈취(115명)가 가장 많았

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학생은 6명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담조연(791명)을 받았다. 특히 정신적 피해를 입고 치료 요양을 받은 학생도 23명이었고, 피해학생 3명은 퇴학 처분, 2명은 전학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모두 1천179명(남 805명, 여 374명)으로 초등 16명, 중학교 1천 45명, 고교 118명 등이었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돼 47%의 학생이 교내 봉사(550명) 명령을 받았다. 이어 사회봉사(179명), 특별교육(176명), 서면사과(99명), 출석정지(87명), 전학조치(57명), 접촉금지(27명), 학급교체(3명) 등의 순이었

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조치된 건수로, 학교폭력이 학생들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은폐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에 전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을 상담한 건수는 지난해만 모두 266건에 이른다. 특히 월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청기간 3월에 39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이 몰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3월을 새학기 학교적응력 향상 기간으로 정해 동·서부 교육청에 연중 학교폭력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버릇없이 군다"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

남부경찰, 3명 조사

선배의 지시를 받은 여중생 3명이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했다. 피해학생은 2시간 가까이 운문을 두들겨맞았다가 가까스로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다. 이 학생은 입술과 눈 등 얼굴을 다쳐 4일째 병원에 입원중이다.

광주남부경찰은 17일 "선배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또

래 학생을 집단폭행한 광주 Y중학교 3학년 유모(15)양 등 3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집단폭행을 지시한 광주 C고교 1학년 김모(16)양에 대해서는 공동상해 교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양 등은 지난 13일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광주시 남구 진월동 삼익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박모(15)양을 때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유양 등은 광주의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의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이 한마디를 위해...

심화과정
개강 3월 2일

단일명 기술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

FINAL 마스터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

특설1 기초시작반

개강: 3월 2일

2011년 8월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중급·고급 이수필수 EBR 관제에 응시할 선·재학생 대상

특설2 기초영어

개강: 3월 8일

공인영어 TOEIC, TOEFL 고득점 취업을 위한 초·중·고·대 4단계 기초·중급·고급·초급·중급·고급 4단계 40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검정원 최고와 강사진의 **박철 출강 강의**

특별초빙

과목: 일반생물학

[특별초빙강사] [특별초빙강사] [특별초빙강사] [특별초빙강사]

MDPass **의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